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78
JULY 2 2021

발간년월 2021년 7월 2일 (통권 제17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아태 지역 연계 위한 물류 방해요인 제거 필요하다.
- 무르만스크 어항에 우수관 및 지붕식 저장고 건설
- 아쿠티야-추코트카 자치구 연결도로 건설 주장 제기
- 러 '운송물류센터(TLC),' 민간 투자사업으로 이관
- 러시아 하원, 선박에서 어획물 1차 처리 법안 검토
- 러시아 선사 페스코(FESCO), 내륙항만 확대 추진

주요 통계

- 2021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4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러·아태 지역 연계 위한 물류 방해요인 제거 필요하다.

그림. 러시아가 정의한 아태지역 범위 연도별 변화 추이



자료 : <http://www.myshared.ru/slide/630479/>

■ 러 대통령, 러시아 기업이 물류 관점에서 아태지역 출구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 러시아 대통령은 시베리아철도(TSR) 및 바이칼 아무르 철도(BAM) 철도 루트의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 물류 기업이 아태지역 출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언급한 아태지역 출구 활용성에 대한 내용은 '2025 러시아 공간 개발 전략'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전략은 경제 거점 간 지속가능한 교통 연결, 러시아 기업의 아태지역 출구 활용도 제고(극동지역 항만 및 국경지역 현대화), 시베리아 및 극동 연방관구 지역(BAM 및 TSR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 철도청(RJD) 등이 투자 프로그램과 2025 전략을 기반으로 아태지역 출구 활용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지시

- 또한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철도청(RJD), 로스세티(Rosseti), 루스기드로(RusGidro)가 장기 투자 프로그램과 2025 전략 내용을 기반으로 아태지역 출구 활용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음
- 그는 또 장기 투자 프로그램과 2025 전략간 세부과제, 목표지표, 재정, 기간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을 일치화하거나 균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 사회경제적 개발 국가프로그램 2024와 2035 전망’과도 연계되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출구로서 극동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현대화, 경제 성장 가속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 그 밖에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총리를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최종 책임자로 지명하였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ss.ru/ekonomika/11703531>(2021.6.28. 검색)

무르만스크 어항에 우수관 및 지붕식 저장고 건설

그림. 무르만스크 어항 전경



자료 : <http://www.morvesti.ru/news/1679/90294/>

■ 러 무르만스크 어항 부두에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관과 지붕식 저장고 건설 추진

- 무르만스크(Murmansk) 어항의 부두에 하수 처리 시설이 포함된 우수관망이 설치되고, 남쪽 화물 선적 지역에 지붕식 저장고 단지가 건설될 예정임
- 우수관 및 하수처리 시설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폐수 정화를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될 예정이라고 안드레이 파블로프 무르만스크 어항 환경 서비스부 차장이 설명함
- 또한 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뿐만 아니라 환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임
- 항만 남쪽의 지붕식 저장고는 압연, 금속가공 및 철근콘크리트 제품 등 불연성 제품 및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건설될 예정임

■ 우수관 및 지붕식 저장고 설치 작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설

-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환경 평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야 함
- 이에 따라 무르만스크 어항 당국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에 시설 건설과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한편, 이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무르만스크시 정부의 경제개발위원회는 사업 추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서면 의견과 제안을 접수할 예정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야쿠티야-추코트카 자치구 연결도로 건설 주장 제기

그림. 야쿠티야 니즈네콜림스크 지역과 추코트카 자치구의 빌리빈스크 위치



자료 :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Map-of-eastern-Russia-open-access-showing-the-location-of-the-Yakutia-Republic-and_fig1_322841841의 자료 편집

■ 젤레노미스키 내륙수로 항만 물동량 늘어 야쿠티야-추코트카 자치구 연결도로 건설 필요

- 아이센 니콜라예프(Aisen Nikolaev) 야쿠티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야쿠티야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조만간 야쿠티야 항만 인프라 현대화 작업이 착수될 예정임
- 이 사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은 러시아 야쿠츠크에 있는 젤레노미스키(Zelenomyskii) 내륙수로 항만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임
- 야쿠츠크의 니즈네콜림스크(Nizhnekolymsk) 지역에 위치한 젤레노미스키 내륙수로항만의 물동량은 2020년에 16만 5000 톤을 상회했는데, 이 가운데 10만 7000 톤이 석탄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하였음

- 향만 당국은 이 지역 물동량과 저장 화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쿠티야와 추코트카 자치구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역 간 연결 도로는 단순히 행정구역상 맞닿아 있는 두 지역을 연결 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화물 수송량을 증가시키고 켈레노미스키 내륙수로 향만, 니즈네콜립스크 지역 및 추코트카 자치구 빌리빈스크(Bilibinck) 지역 일대의 기업들에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야쿠티야 총리는 야쿠티야-추코트카 자치구 연결도로 건설을 러시아 교통부에 건의할 계획

- 안드레이 타라센코(Andrei Tarasenko) 러시아 야쿠티야(Yakutia) 총리는 야쿠티야의 니즈네콜립스크 지역 실무방문의 일환으로 발레리 센차코프(Valerie Sentyakov) 야쿠티야 니즈네콜립스크 지역 대표, 정부 부처장 및 기업 대표들과 운송물류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하는 한편, 북극권 개발의 성공여부는 운송 인프라 개발과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함
- 그는 또 현재 켈레노미스키 내륙수로 향만이 최대 수용 가능 물동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역의 산업개발 전망은 매우 좋고, 화물 수송량은 증가하고 있어 도로 건설이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음
- 야쿠티야 당국은 추코트카 자치구 측과 함께 러시아 교통부에 도로 건설 문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 지역 운송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러시아 북극 지방의 수송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러 ‘운송물류센터’, 민간 투자사업으로 이관

■ 러시아 교통부, 연방 물류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운송물류센터’를 제외^{a)}

- 2020년 8월, 러시아 교통부 발의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그 동안 추진하던 “주요 인프라의 현대화와 확장을 위한 종합계획(KPMI)”에서 ‘운송물류센터(TLC)’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 프로그램인 “운송 시스템 개발”로 이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같은 조치는 기존의 운송물류센터(TLC) 사업에 정부 참여가 미미했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향후 해당 프로젝트는 민간 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임
- 타마라 사포노바(Tamara Safonova) 러시아 국가 경제 및 행정 아카데미의 국제 경영 대학원(RANEPa) 부교수는 운송 물류센터에 내륙컨테이너 기지(Dry Port) 구축, 기타 운송 수단 연결을 통해 접근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물류 성과 지수(LPI) 향상, 화물 통관 시간 단축 등 물류 서비스 부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운송물류센터(TLC)는 고품질의 다목적 창고-터미널 인프라 구축, 최첨단 운송정보 시스템, 양질의 서비스 구현 시 최종고객(End user)에게 부가 물류 서비스(분류, 포장, 라벨링, 소매 제품 선별 및 배송, 품질 검수, 재고관리 등)제공 등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에너지 화물과 연료 수송 위주였던 터미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임
- 지난해 12월, 러시아 교통부는 운송물류센터(TLC)의 3가지 과제로 멀티 화물 물류센터 거점 구성, 통합 디지털 물류 운송 환경 구성, 국제 운송 회랑 개발을 언급했고, 이를 위해 7개 연방 구역에 19개 운송물류센터(TLC)를 건설하여 해당 과제 실현을 통해 2024년 말까지 물류 성과지수 50위, 물류비용 1% 절감, 화물 물동량 연간 5만 1,600만 톤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임
- 그러나 과제별 통합 프로젝트로 진행되지 않아 의사결정의 불일치 발생 가능성 및 실행기간이 지연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비판도 있음
- 코메르산트(Komersant) 러시아 일간지에 따르면, 19개 운송물류센터(TLC) 중 16곳에는 투자자가 있으며, 이 중 4곳의 투자업체 트랜스컨테이너(Transcontainer)와 플라이트 빌리지 알유(Freight Village RU)는 지방정부와 러시아 철도청이 확인한 결과 프로젝트를 완료할 의사를 밝힘
- 미하일 부르미스트로프(Michail Burmistrov) 인포라인 애널리스트(Infoline-Analytics) 대표는

운송물류센터(TLC) 프로젝트는 전자상거래와 철도 컨테이너 운송의 성장으로 철도, 자동차 및 기타 화물 운송이 함께 진행되어 화물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 예컨대 칼리닌그라드에 있는 운송물류센터(TLC)는 이 지역의 세관 및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 유럽(로테르담, 함부르크, 엔트워프, 빈 등)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2019년 대비 자동차 운송량 12.9% 증가,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 25.1% 증가, 수입 화물량은 26.6배 증가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운송물류센터(TLC)인 “야니노(Yanino) 물류센터”와 “슈사리(Shushary) 물류 터미널”도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음
- 2011년, 투자금 1만 4,500만 달러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설립된 최신식 멀티 물류 단지인 “야니노(Yanino) 물류센터”는 철도 터미널, 창고, 세관, 컨테이너 화물의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착공 당시 수용량 20만 톤, 일반 화물 40만 TEU에서 현재 최대 수용량 40만 톤, 일반 화물 처리량 100만 TEU까지 확대됨
- 트랜스컨테이너(Transcontainer)의 투자로 설립된 멀티 복합물류 단지 “슈사리(shushary) 물류 터미널”은 러시아의 첫 번째 내륙컨테이너 기지(Dry Port)로 컨테이너 및 일반 화물의 처리를 위한 서비스, 컨테이너 터미널, 임시저장창고와 A급 창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수용 용량은 연간 4만 5,000TEU이고, 빈 컨테이너 용량은 27만 3,000TEU임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analitika/1685/89782/>(2021.6.26 검색)

러시아 하원, 선박에서 어획물 1차 처리 법안 심의

■ 근해 어업 종사자들은 어획물을 선상에서 1차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

- 국회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근해 어업 종사자들이 어획물을 선상에서 1차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임
- 이 입법안에 따르면 근해 어업을 할 시, 어획물의 배를 갈라 방혈시키는 방법으로 어획물 처리를 어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허용됨
- 법률 시행 일자는 2022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법률 시행 일자 전까지는 어획물들의 머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어획물 1차 처리가 가능함

■ 선상에서 어획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빈발

-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선상에서 어획물들의 배를 가르거나 방혈을 하는 근해 어민들의 사례가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잦다고 언급함
- 어민들은 북측 수역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이 며칠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1차 처리를 하지 않고는 낚 생선을 2~5시간 이상 저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어획물을 1차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함
- 의원들은 어획 후 짧은 시간 내에 어획물들을 1차적으로 처리하면 어획물들의 영양 및 생물학적 가치가 보존되면서 양질의 냉장 어류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러시아 선사 페스코(FESCO), 내륙항만 확대 추진

■ 2021년 내륙항만을 확대하고, 신규 설비 조달을 위한 투자 7000만 달러 투입

- 아르카디 코로스텔레프 페스코(FESCO) 회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FESCO가 2021년 내륙항만망을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설비 조달을 위한 투자는 2021년 약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아르카디 회장은 현재 FESCO가 러시아 전역에 내륙항만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7000만 달러를 항만 시스템 확충에 투자하여 러시아 북서부, 예카테린부르크, 극동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FESCO는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도 추진 고려

- 아르카디 회장은 극동지역에 항만이 구축되면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의 물동량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FESCO의 투자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함
- 이 회사는 현재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의 컨테이너 처리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보관 시설을 확대할 경우 1회 보관 면적이 16% 증가한 3500TEU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FESCO는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7월부터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89949/\(2021.6.23 검색\)](http://www.morvesti.ru/news/1679/89949/(2021.6.23%20검색))



주요 통계



표. 2021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4.18 (+10.4%)**	6.49 (-7.3%)	20.67	+3.7%
북극해	2.09 (-8.2%)	5.69(-4.7%)	7.78	-5.7%
발트해	10.22 (+5.7%)	11.73 (-14.5%)	21.95	-6.2%
아조프-흑해	8.51 (+6.1%)	12.2(-9.0%)	21.71	-3.1%
카스피해	0.23 (-29.8%)	0.4 (+3.4%)	0.62	-11.5%
합계	35.23(+6,1%)	36.51(-9.7%)	71.74	-2.7%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흐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스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김영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 a) [https://nangs.org/news/economics/gruzooborot-morskih-portov-rossii-za-5-mesyatsev-s-nachala-goda-vyros-na-32\(2021.6.17. 검색\)](https://nangs.org/news/economics/gruzooborot-morskih-portov-rossii-za-5-mesyatsev-s-nachala-goda-vyros-na-32(2021.6.17. 검색))
- b) [https://portnews.ru/news/312779/\(2021.6.17. 검색\)](https://portnews.ru/news/312779/(2021.6.17. 검색))
- c) [http://www.morvesti.ru/news/1679/90045/\(2021.6.17. 검색\)](http://www.morvesti.ru/news/1679/90045/(2021.6.17. 검색))

표. 2021년 4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325,225.3	71,084.9	938.2	663.4	326,163.5	71,748.3
25-27	광물 제품	405,678.3	23,732.9	28,780.7	41,079.5	434,459.0	64,812.3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330,529.4	21,899.3	218.4	0	330,747.8	21,902.2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35,237.7	81,763.9	907.6	270.9	36,145.3	82,034.8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1.0	1,229.0	6.0	7.2	7.0	1,236.2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3,786.2	11,668.6	814.9	68.7	94,601.1	11,737.3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137.9	29,461.0	111.0	397.1	248.8	29,858.1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9,114.6	61,321.8	376.2	2,841.2	59,490.8	64,163.0
84-90	기계류	60,760.1	477,716.4	1,470.3	4,031.6	62,230.5	481,748.0
68-71, 91-97	기타	636,563.1	41,566.5	21,793.1	292.1	658,356.1	41,858.6
	합계	1,616,504.1	799,545.1	55,197.9	49,651.7	1,671,702.1	849,196.7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6.17. 검색)

표. 2021년 4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장수산물	0	0.0	-	-	-	-	-	-	0.0	0.0	-	-
0303	냉동수산물	117,986	145,064.1	1,436	4,479.0	60	50.0	-	-	118,046.0	145,114.0	1,436	4,479.0
03031	연어	126	429.9	-	-	0	0.0	-	-	126.1	429.9	-	-
030331	광어	223	1,223.3	-	-	-	-	-	-	223.4	1,223.3	-	-
030332	가자미	345	269.8	-	-	-	-	-	-	344.6	269.8	-	-
030339	기타 넙치류	1,188	762.6	-	-	-	-	-	-	1,188.4	762.6	-	-
030351	청어	6,009	3,684.7	-	-	20	22.3	-	-	6,028.6	3,707.0	-	-
030363	대구	9,289	21,302.6	-	-	-	-	-	-	9,289.4	21,302.6	-	-
0303670000	명태	92,309	93,735.4	-	-	0	0.0	-	-	92,309.0	93,735.4	-	-
0303893	농어	0	0.0	-	-	-	-	-	-	0.0	0.0	-	-
030391	알류	5,203	41,383.4	-	-	-	-	-	-	5,202.9	20,186.2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440	641.7	-	-	-	-	-	-	439.7	641.7	-	-
0304	생선 필레	10,849	30,750.7	196	608.9	9	26.1	-	-	10,857.7	30,776.8	196	608.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1	3.7	24	119.7	0	0.0	-	-	1.0	3.7	24	119.7
0306	갑각류	5,234	115,369.7	29	192.2	-	0.0	-	-	5,233.7	115,369.7	29	192.2
030614, 030633, 030693	계	3,472	99,191.3	-	-	-	0.0	-	-	3,471.7	99,191.3	-	-
0307	조개류	781	1,587.3	-	-	1	4.6	-	-	782.2	1,591.9	-	-
03072	가리비	511	996.1	-	-	-	-	-	-	510.6	996.1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202	444.9	46	135.8	1	4.6	-	-	203.0	449.6	46	135.8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1,086	3,177.9	-	-	0	0.0	-	-	1,086.0	3,177.9	-	-
03081	해삼	78	118.3	-	-	0	0.0	-	-	78.3	118.3	-	-
03082	성게	1,007	3,050.8	-	-	-	-	-	-	1,007.4	3,050.8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6.17.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6.17. 검색))